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14일, 권향엽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9.8.)

상정, 제안설명,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9.9.)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2025.11.19.)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5.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권향엽의원)

‘산업의 쌀’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인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철강산업 경쟁력은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되며, 공급 차질 시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위협이 초래될 수 있어 경제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임.

또한, 전통 산업을 넘어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 첨단 로봇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적용될 미래소재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 미래 산업용 소재 공급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현재 철강 내수기반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중국산 등 수입 철강재가 대거 유입되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전세계적 보호주의 확산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동시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탈탄소화 압박이 거세지고 있으나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응에 차질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철강산업을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도입, 탈탄소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 청정수소, CCUS 등과 같은 필수 인프라 구축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내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중립 전환 압력,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철강산업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음.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고부가 철강재 개발,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여 철강산업 기반 유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4.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성민)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5.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